

현장근로자를 생각하는 안전, 그 속에서 무재해 준공!



롯데건설(주) 롯데백화점 부산해운대점 현장

야산에는 아직도 봄이 오지 않은 듯 영하권의 꽃샘추위에 떨고 있는 앙상한 가지가 안쓰러운 것이 어제이다.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싣고 남쪽도시 부산을 향하는 오늘 창밖에는 봄기운이 느껴진다. 야산 군데군데 이름 모를 나뭇가지에 하얗고, 분홍빛으로 물들고,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 담 자락에는 매화와 개나리가 넘실된다.

부산역에서 봄기운을 따라 사람의 정이 느껴지는 현장, 근로자 중심으로 하루하루 무재해를 일궈가는 곳을 향했다. 해운대 센텀시티 내에서 롯데건설(주)가 시공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해운대점 신축공사 현장(오경수 현장소장)이 바로 그 곳이다.

봄기운과 함께 힘찬 무재해 시공을 하고 있는 이곳은 부산시의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복합 시설을 갖춘 첨단미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Slurry Wall, RCD, TOP DOWN,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공법으로 지하 7층 지상 10층 규모의 백화점 신축현장이다. 그 속에서 안전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정리정돈에서 시작하는 안전 ■■■

현장에 첫발을 내 딛었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현장임이 느껴진다. 현장을 휘어 감듯 현장을 두르고 있는 안전통로는 안전한 산책길이고, 안전교육장 그 자체이다. 현장 사무실로 들어가는 2분여의 시간동안 안내 방송이 인상적이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방송시설은 이곳 현장의 또 하나의 안전 길잡이이다.

현장 사무실을 향하는 동안 현장 분위기는 시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간이 가질 않는다. 건설현장 답지 않은 깨끗함, 분주한 근로자들에 비해 조용한 환경,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여느 현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안전의 기본은 안전한 통로입니다. 통로가 확보된다는 것은 현장 정리 정돈이 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경수 소장의 말과 같이 건설현장 답지 않은 이곳 분위기는 분명 롯데백화점 해운대점 신축공사 현장 사람들의 안전 의지이다.



▲ 오 경 수 현장소장

안전은 개선 ■■■

“안전은 곧 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송현성 안전팀장!

무재해의 롯데백화점 해운대점을 이끌기 위해 적극적인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시야를 넓혀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 이것이 그가 이야기 하는 개선이다.

벤치마킹은 새롭게 다듬어 이곳 현장의 것으로 태어나는데, 색다른 방송 시스템 활용 방법도 그 중 하나다. 그 외에도 지하 근무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도자 및 신규근로자, 현장 근로자를 쉽게 구분하기 위한 안전모의 반사띠, 삼진아웃제도 관리 시스템, 4방향 조명확보가 가능한 조명시설, 정화능력이 탁월한 국소배기장치, 무재해활동판, 작업현황판, Tag를 이용한 와이어로프와 분전함 관리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작업현황판과 Tag를 활용한 관리이다.

현장 평면도면을 조희장에 설치한 작업현황판은 위험예지활동판과 함께 안전조희시 각 협력업체 소장 및 관리감독자가 그날 있을 작업 내용 및 위험요소를 주시시키는 것, Tag는 각 협력업체 및 공종별에 따라 분전함 또는 판넬에 전선 연결시 색깔 별로 Tag(업체명, 관리자, 연락처, 점검일) 부착·관리와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와이어로프도 관리 하는데 사용 1주는 녹색, 2주는 노란색, 3주는 청색을 부착하며, 부식·마모가 심한 경우는 적색 Tag를 부착하여 별도 관리를 한다.

현장 내 모든 이는 하나가 되어 ■■■

오경수 소장은 직원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보다 깨끗하게, 보다 더 안전하게, 보다 더 건강하게”라는 원칙아래 최우선적 선안전 조치를 통한 근로자 보호를 외친다.

항상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근로자 중심에서 모든 안전·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오경수 소장은 평소에도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침 조회를 한번도 거르지 않고 현장사람들 속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모습은 사






람의 정이 묻어 있다. 따뜻한 마음은 우수근로자 포상에서도 볼 수 있다.

매월 현장 우수근로자에게 수여하는 맞춤형(본인, 부인, 자녀 등) 반지는 가정의 일로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희망과 격려 차원에서 작지만 수여한다. 잠시라도 마음의 평온함을 주기 위함이다. 가정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직장에서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취지이다.

따뜻한 마음은 현장 모두를 하나로 융화시킨다. 앞으로 있을 함께 뛰는 동백섬 한바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이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무재해 준공을 향해 ■■■■

지하와 지상으로 시공이 분주한 가운데 지상으로의 철골작업이 한창이다. 철골위에서 작업에 임하는 작업자의 모습은 안전교육 교재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모습들, 바로 FM적인 작업 모습이다.

올 2006년이 지나면 무재해 1배수를 달성하고, 무재해 준공으로 이어질 경우 무재해 2배수까지 달성이 가능한 이 곳 롯데백화점 해운대점 신축공사현장은 앞으로 FM적인 자세와 인력관리에 집중한 밀착관리, 무사고·무재해·무결점으로 진정한 무재해 현장으로 준공을 맞이할 것이다.  <최종덕 기자>